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9

생활세금·공적지원·금융복지

세금과 지원을 같은 현금흐름에서 관리하고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을 확인한다.

교수자용 지도서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교수자 안내

설명보다 학습자의 실제 기록·선택 이유·도움 요청 문장을 확인한다. 피해·채무·질병·가족갈등을 공개하도록 압박하지 않는다.

수업 목표

- 소득·소비·재산·이전 과정의 세금을 구분한다.
- 원천징수와 최종 세액 확정 이 다름을 설명한다.
- 지원의 대상·소득·재산·가구·증빙·신청 요건을 확인한다.
- 기준일·공식 출처·상담 기록을 남겨 오래된 정보를 피한다.

교과 해설 · 왜 가르치고 왜 이 순서인가

세금과 공적지원은 생활비 밖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생활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세금은 소득·소비·재산 등 일정한 사실에 따라 납부 의무가 생기고, 공적지원은 대상·소득·재산·신청 시점 등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가산 부담이나 지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공제·신고·급여·신청이라는 기본말을 먼저 이해한 뒤 실제 확인 경로를 배웁니다.

이 수업이 보호하려는 생활영역

- 납부기한과 가산 부담
-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 주거·의료·돌봄의 최소생활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제출하는 과정
- 변경된 소득·가구상황의 반영

개념의 선후관계

순서	개념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이유
1	세금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2	공제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3	신고와 납부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4	공적지원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5	기준일과 변경신고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교수자가 지킬 설명 원칙

- 세금과 지원을 혜택·벌의 언어가 아니라 요건과 절차로 설명합니다.
- 학습자의 소득·재산을 공개하거나 자격을 교실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 세율·한도는 적용연도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게 합니다.
- 세무·복지의 개별 결론은 담당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넘깁니다.

필수개념 지도표

세금

법에서 정한 사실과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입니다.

- 생활 예: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대 예: 벌을 받았을 때만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세목마다 대상·계산·신고·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 이해확인: 모든 세금은 같은 기관에 같은 방법으로 내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세목과 납부기관·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이나 비용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 생활 예: 요건에 맞는 비용을 증빙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반대 예: 영수증이 있으면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공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공제는 대상·한도·증빙·적용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이해확인: 비용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법정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세금 계산에 필요한 사실을 알리는 일과 실제로 돈을 내는 일입니다.

- 생활 예: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반대 예: 신고만 하면 돈도 자동으로 납부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신고·납부·환급은 서로 다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
- 이해확인: 신고 완료 화면이 있으면 납부도 끝난 건가요?

도달 기준: 아닐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적지원

법과 제도에 따라 생활·주거·의료·금융 부담을 돕는 지원입니다.

- 생활 예: 가구·소득·재산·위기상황 요건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 반대 예: 어려운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지원은 대상·신청·조사·결정·변경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 이해확인: 비슷한 형편이면 모두 같은 지원을 받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가구와 제도별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변경신고

어느 날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달라진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 생활 예: 취업·이사·가구원 변경이 지원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 반대 예: 한 번 선정되면 조건이 바뀌어도 계속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세금과 지원은 적용연도·기준일·변경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해확인: 소득이 바뀌어도 다음 신청 때까지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도달 기준: 제도별 변경신고 의무와 시점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개념 설명 수업안

각 단원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원리 설명-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교정-확인문제의 순서로 지도합니다.

1. 소득·세금·과세기간

도입 질문: 돈이 들어오면 모두 같은 세금을 냅니까요?

세금은 소득·재산·소비 등 과세대상에 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급여, 사업, 이자 등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과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과 거래를 묶는 기간이므로 돈을 받은 날짜와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들어온 돈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 판단 순서 2: 적용되는 과세기간과 납세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공식 안내에서 신고·납부 의무를 찾습니다.
- 시범 사례: 같은 100만원이라도 급여, 사업대가, 예금이자라면 적용되는 계산과 증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계좌로 받은 모든 돈이 곧 과세소득이라는 생각도,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는 생각도 틀립니다.
- 확인 질문: 금액만 알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 기간, 공제와 납세자 상황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2. 원천징수와 최종 정산

도입 질문: 미리 댔 세금은 끝난 세금일까요?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은 최종 세액의 선납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공제와 비교해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판단 순서 1: 지급명세와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다른 소득과 공제자료를 모읍니다.
- 판단 순서 3: 정산·신고 결과와 납부·환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 시범 사례: 프리랜서 대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됐어도 다른 소득과 비용을 반영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세금을 미리 댔으니 신고할 일이 전혀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확인 질문: 원천징수액과 최종 세금은 항상 같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전체 소득과 공제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공제·환급과 증빙

도입 질문: 영수증이 왜 권리와 연결될까요?

공제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줄이는 제도이고,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결과입니다. 지출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한도·증빙·신청기한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약서, 납입증명, 영수증 등 공식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가능한 공제의 대상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요구되는 증빙을 발급·보관합니다.
- 판단 순서 3: 신청 결과와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 시범 사례: 교육비를 지출했어도 대상자 관계와 기관, 과세기간 등 요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환급 광고에 표시된 금액을 확정된 내 돈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공식 신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 확인 질문: 영수증이 있으면 모든 지출이 공제될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공적지원의 대상·신청·변경

도입 질문: 어려우면 지원이 자동으로 들어올까요?

공적지원은 소득·재산·가구·위기사유·연령·거주지 등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도마다 기준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생활 상황이 바뀌면 자격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신고와 재확인 의무도 살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내 가구와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신청기한·필요서류·담당기관을 찾습니다.
- 판단 순서 3: 결과와 이의절차, 변경 신고사항을 기록합니다.
- 시범 사례: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복지로 조회만으로 끝내지 않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긴 급지원 등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바로잡을 오해: 인터넷 모의계산에서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확인 질문: 지원제도는 조건을 충족하면 언제나 자동 지급될까요?

도달 기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와 필요한 확인 절차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범풀이 지도

신청하지 않아 놓친 지원

소득이 줄었지만 지원은 자동으로 찾아올 것이라 생각해 아무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 결정: 현재 가구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습니다.
- 정보: 대상·소득·재산·기준일·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 위험: 신청이 필요한 제도를 놓쳐 생활 공백이 생깁니다.

- 행동: 복지로·지자체 등 공식 창구에서 상담·신청합니다.
- 기록: 제출자료와 접수·결정 통지를 보관합니다.

60분 핵심 수업에서도 '왜 배우는가·필수개념·개념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례 수를 줄이되 기초학습은 줄이지 않습니다.

보강 주제 지도안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주식·해외소득은 거래와 세금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증권사 화면의 수익과 세법상 손익·환산액·신고 의무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거주자 여부, 자산 종류, 취득·양도일, 환율 적용, 손익통산, 신고·납부 여부를 해당 과세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거래내역과 환전내역을 보관하고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검토 2026-08-24

https://www.nts.go.kr/tax/yangdo_1.html

60분 핵심 수업안

시간	활동	교수자 확인
0~5분	생활장면·학습 이유	이 학습이 지키는 생활영역 확인
5~15분	용어와 개념카드	뜻·예·반대 예·개념 관계 확인
15~30분	개념 작동 과정	원리·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확인
30~38분	시범풀이	교수자가 판단과정을 소리 내어 보여 줌
38~50분	사례 1개	즉시·나중 결과와 추가정보 비교
50~60분	행동·권리·다음 학습	기초 확인문제와 실행 날짜 확인

90분 수업안

시간	활동	산출물
0~10분	진단·학습계약	개인정보·발언 선택권 확인
10~25분	Part 2·3 구조읽기	용어 8개 생활 예시
25~45분	Part 4 비교도구	비교표 1장
45~70분	사례 5개 모둠실습	선택·근거·추가정보·다음 행동
70~82분	권리·지원 역할연습	도움 요청 문장
82~90분	사후평가·30일 약속	개인 행동계획

다섯 사례 운영 질문

1. 환급을 기대한 연말정산

작년처럼 환급될 것으로 보고 소비했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환급은 저축이 아니라 정산 결과다.
- 추가정보: 자료 누락과 소득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올해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고 환급·추가납부 모두에 대비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예상 환급액을 먼저 쓴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공제자료를 확인하지 않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2. 부업 소득

플랫폼 부업 수입에 세금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원천징수와 최종 신고를 구분한다.
- 추가정보: 소득 유형과 금액·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소득 성격·지급명세·신고 필요를 국세청에서 확인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원천징수됐으니 무시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입금내역을 삭제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3. 사업 세금 부족

매출 통장의 돈을 모두 운영비로 썼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세금 달력과 별도 자금을 둔다.
- 추가정보: 납부 곤란 때 가능한 절차는 기한 전에 세무기관에 문의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예상 세금 뭇을 분리하고 신고·납부 상담을 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다음 매출로 막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고지서를 피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4. 실직과 지원

온라인 글만 보고 자격이 없다고 포기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공식 자격 확인을 먼저 한다.
- 추가정보: 여러 제도의 중복·우선순위는 담당기관에 확인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고용24·복지로에서 기준일과 가구 요건을 확인하고 상담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과거 글을 그대로 따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대리 신청 광고에 개인정보를 준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5. 부모 부양

부모를 돕느라 본인 가구가 위기인데 지원을 숨긴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가구 전체의 안전을 기준으로 상담한다.
- 추가정보: 지원 판정은 제도별 가구와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가구 범위·사적 이전·부양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가능한 지원을 묻는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현금 이동을 숨긴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가족끼리 빚만 늘린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오개념 바로잡기

오개념: 원천징수되면 신고가 모두 끝난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지원은 어려우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작년 기준을 올해에도 그대로 쓰면 된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평가 해설

1. 생활세금·공적지원·금융복지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정답 A.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사업·소비·재산·이전으로 분류한다.

A.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사업·소비·재산·이전으로 분류한다.

B. 이 선택은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사업·소비·재산·이전으로 분류한다.

C. 이 선택은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사업·소비·재산·이전으로 분류한다.

D. 이 선택은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사업·소비·재산·이전으로 분류한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정답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A. 이 선택은 '현재 보이는 금액만'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B.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C. 이 선택은 '광고 순위와 후기 수'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D. 이 선택은 '친구가 선택한 상품'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정답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 A. 이 선택은 '기억해 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B. 이 선택은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C.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D. 이 선택은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답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 A. 이 선택은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B. 이 선택은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C.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 D. 이 선택은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정답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 A. 이 선택은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번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B. 이 선택은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C.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 D. 이 선택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6. 사례 '환급을 기대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올해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고 환급·추가납부 모두에 대비한다.

- A. 환급은 저축이 아니라 정산 결과다. 자료 누락과 소득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B. 이 선택은 '예상 환급액을 먼저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환급은 저축이 아니라 정산 결과다. 자료 누락과 소득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C. 이 선택은 '공제자료를 확인하지 않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환급은 저축이 아니라 정산 결과다. 자료 누락과 소득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환급은 저축이 아니라 정산 결과다. 자료 누락과 소득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7. 사례 '부업 소득'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소득 성격·지급명세·신고 필요를 국세청에서 확인한다.

- A. 원천징수와 최종 신고를 구분한다. 소득 유형과 금액·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 B. 이 선택은 '원천징수됐으니 무시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최종 신고를 구분한다. 소득 유형과 금액·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 C. 이 선택은 '입금내역을 삭제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최종 신고를 구분한다. 소득 유형과 금액·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최종 신고를 구분한다. 소득 유형과 금액·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8. 사례 '사업 세금 부족'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예상 세금 뭉을 분리하고 신고·납부 상담을 한다.

- A. 세금 달력과 별도 자금을 둔다. 납부 곤란 때 가능한 절차는 기한 전에 세무기관에 문의한다.
- B. 이 선택은 '다음 매출로 막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세금 달력과 별도 자금을 둔다. 납부 곤란 때 가능한 절차는 기한 전에 세무기관에 문의한다.
- C. 이 선택은 '고지서를 피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세금 달력과 별도 자금을 둔다. 납부 곤란 때 가능한 절차는 기한 전에 세무기관에 문의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세금 달력과 별도 자금을 둔다. 납부 곤란 때 가능한 절차는 기한 전에 세무기관에 문의한다.

9. 사례 '실직과 지원'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고용24·복지로에서 기준일과 가구 요건을 확인하고 상담한다.

- A. 공식 자격 확인을 먼저 한다. 여러 제도의 중복·우선순위는 담당기관에 확인한다.
- B. 이 선택은 '과거 글을 그대로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공식 자격 확인을 먼저 한다. 여러 제도의 중복·우선순위는 담당기관에 확인한다.
- C. 이 선택은 '대리 신청 광고에 개인정보를 준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공식 자격 확인을 먼저 한다. 여러 제도의 중복·우선순위는 담당기관에 확인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공식 자격 확인을 먼저 한다. 여러 제도의 중복·우선순위는 담당기관에 확인한다.

10. 사례 '부모 부양'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가구 범위·사적 이전·부양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가능한 지원을 묻는다.

- A. 가구 전체의 안전을 기준으로 상담한다. 지원 판정은 제도별 가구와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다.
- B. 이 선택은 '현금 이동을 숨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가구 전체의 안전을 기준으로 상담한다. 지원 판정은 제도별 가구와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다.
- C. 이 선택은 '가족끼리 빚만 늘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가구 전체의 안전을 기준으로 상담한다. 지원 판정은 제도별 가구와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가구 전체의 안전을 기준으로 상담한다. 지원 판정은 제도별 가구와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다.

민감한 상황 대응

- 피해·연체·가족갈등 경험을 전체 앞에서 말하게 하지 않는다.
- 즉시 위험·범죄·자해 위험이 있으면 교육보다 안전과 기관 연계를 우선한다.
- 교수자가 법률·세금·투자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적용 시점의 공식 상담을 연결한다.

- 개인 활동지는 수거를 최소화하고 보관·폐기 기준을 사전에 알린다.

수준별·상황별 조정

학습 상황	조정 방법	지켜야 할 기준
청소년·초보	용어를 생활 장면과 그림으로 먼저 설명	계약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음
저문해·이주민	한 문장 한 정보, 숫자·날짜를 크게 표시	통역·쉬운 자료 제공 여부 확인
고령·시각 불편	큰 글씨와 소리 내어 읽기, 충분한 응답시간	대신 결정하지 않고 본인 의사 확인
피해 경험자	가상사례와 비공개 선택지 사용	경험 공개·책임 추궁 금지

수행평가 루브릭

기준	기초	도달	확장
구조 이해	용어를 찾는다	돈·책임·기한을 설명한다	예외와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
비교 판단	한 요소를 본다	총비용·위험·권리를 비교한다	최악 시나리오와 중단 기준을 정한다
행동·기록	행동을 고른다	날짜·근거·증거를 적는다	공식 기관에 묻는 문장을 작성한다
권리·지원	기관을 안다	알맞은 기관을 고른다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자료 업데이트 점검

내용 기준일 2026-08-24,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숫자·기한·기관명·URL·법령 개정 여부를 수업 전에 다시 확인한다.

점검 대상	질문	기록
법·제도	시행일·대상·예외가 바뀌었는가	확인 URL·날짜
숫자·기한	한도·세율·신청기한이 유효한가	공식 문서 제목
기관·서비스	명칭·전화·주소·절차가 유효한가	접속·전화 결과
사례	과장·낙인·단정이 없는가	수정 사유

교수자료 A · 개념·경계 지도

이 모듈이 담당하는 역량과 다른 모듈로 넘겨야 할 내용을 구분한다.

영역	이 모듈에서 다룰 것	수업에서 단정하지 않을 것
이해	소득·소비·재산·이전 과정의 세금을 구분한다.	개별 계약의 최종 법률효과
비교	원천징수와 최종 세액 확정 이 다를 을 설명한다.	미래 가격·금리·수익의 예측
행동	지원의 대상·소득·재산·가구·증빙·신청 요건을 확인한다.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정답 강요
권리	기준일·공식 출처·상담 기록을 남겨 오래된 정보를 피한다.	기관의 최종 결정·판결 결과

교차 모듈

- EDU-07 직장·자영업 금융

교수자료 B · 수업 전 최종 검증표

수업 당일에도 공식 근거와 접근성을 다시 확인한다.

검증 항목	완료	메모
공식 URL 접속과 적용 기준일	☐	
한도·기한·기관명 최신성	☐	
본문·화면 글자 크기와 대비	☐	
활동지 개인정보 최소화	☐	
민감 경험 비공개 선택권	☐	
상담·신고 연결 방법	☐	
60분·90분 시간 배분	☐	
사전·사후평가 동일 역량	☐	

공식 확인처

- 국세청 · 근로소득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77&mi=6433>
- 국세청 · 사업소득 안내 · <https://b.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03&mi=6623>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찾기 · <https://www.bokjiro.go.kr/>
- 고용24 · 고용서비스 · <https://www.work24.go.kr/>